

무형유산도시 전주의 숨씨 '한 자리에'

전주시, 내달 14일까지 무형문화재 발전 위한 공개행사 개최
판소리·춤 등 예능분야 공연과 부채·가야금 등 기능분야 전시

세계적인 무형유산도시로 손꼽히는 전주가 자랑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기여와 숨씨를 선보였다.

전주시는 24일 소리문화관에서 열린 기념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4일까지 시민과 관광객에게 무형문화유산을 알리고,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하는 2019 전주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진행한다.

올해 공개행사에는 전주지역에서 활동중인 무형문화재 보유자 39명과 보유단체 2개가 참여해 기간 갖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게 된다.

예능분야 공연은 전주소리문화관에서 27일까지 이어지며, 기능분야 전시는 어진박물관에

서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예능공연에서는 △이옥희(심청가) △최선(호남살풀이춤) △문정근(전라삼현승무) △조소녀(춘향가) △김무철(한량춤) △성준숙(적벽가) △왕기석(수궁가) △이길주(호남산조춤) △오종수(시조창) △김영희(시조창) △이선수(가곡) △지성자(가야금산조) △박애숙(가야금병창) △김소영(수궁가) △전라삼현육각·전태준 △영산작법 △김광숙(교방무) △조용안(판소리장단) 등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들이 각 종목별 기량을 뽐낼 계획이다.

또한 어진박물관에서 총 3부로 나눠 진행되는 기능보유자의 작품전시회에서는 △조정형(향토술담그기) △고수환(악기장) △이의식

(옷칠장) △최동식(악기장) △김재중(소목장) △신우순(단청장) △김년임(전통음악) △이종덕(방짜유기장) △윤규상(우산장) △최종순(악기장) △최대규(전주나전장) △이신임(전주나죽장) △곽찬찬(모필장) △엄재수(선자장) △유배근(한지발장) △방화선(선자장) △김종연(민속목조각장) △김혜미자(색지공예) △김선애(지승장) △변경환(배첩장) △김한일(아장) △박계호(선자장) 등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수십 년 고집과 정성으로 이어온 무형문화재 작품과 제작에 쓰는 도구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통문화도시 전주가 자랑하는 무형문화재를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소중한 무형문화를 알리고 그 가치를 키울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호철 기자



전주한지박물관에서 김승연 작가의 '한지조형전-이야기숲'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자연미 풍부한 아름다움을 만나다

전주한지박물관서 김승연 한지조형전 - 이야기숲 개최

전주한지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지난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김승연 작가의 '한지조형전-이야기숲'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김승연 작가는 한지의 독특한 색감과 질감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좀처럼 한지를 만들어 작품에 사용한다.

좀처럼 한지는 한지를 물에 적셔 손으로 주무르거나 쳐서 종이 안에 있는 닥의 섬유질이 엉키고 밀착이 강화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오래 주무를수록 질겨지는 닥종의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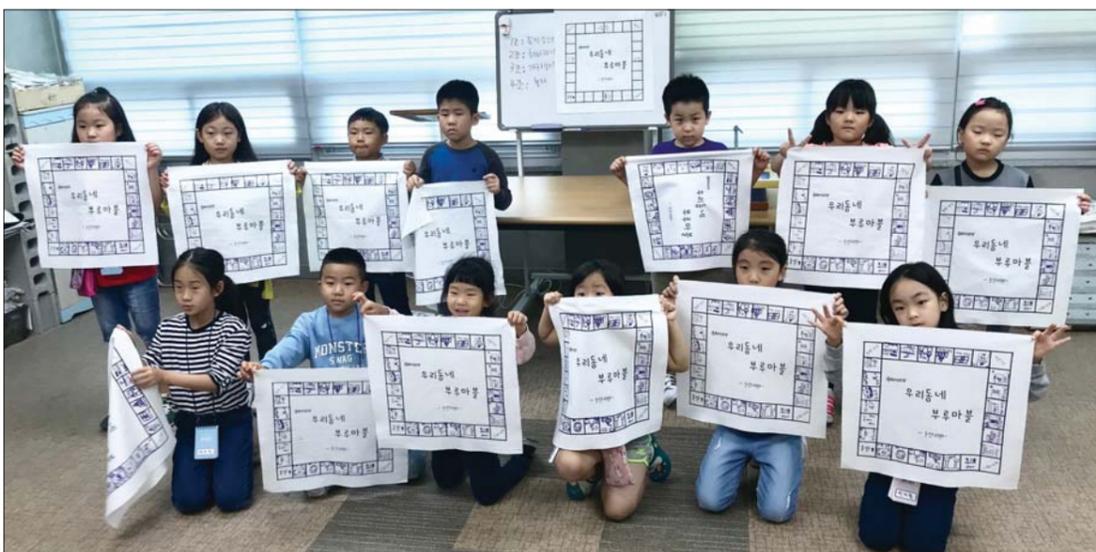
천연 염색된 색한지를 겹쳐 원하는 색의 좀처럼 한지로 만들어내는 노력과 정성, 그리고 자연스러운 색을 발현시키는 탁월한 색감, 그리고 다양하게 만들어진 좀처럼 한지로 작품을 완성하는 조형감성은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작가적 탁월성이라 할 수 있다.

작품에서 발현되는 조형성은 물론, 좀처럼 한지의 질감과 색감은 남녀노소 누구라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다. 또한 작품의 소재 또한 자연 친화적이며 소소한 일상생활과 밀접하기에 어느 곳에 놓더라도 주위와 잘 어울리는 자연미 감성이 풍부한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김승연 작가는 서양화와 미술교육을 전공하였으며(일본 동경학예대학 미술교육전공 석사), 좀처럼 한지를 주 소재로 조형 작품 작업을 지속하며 미술교육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지 조형작품으로 표현하는 전통문화 리뉴얼 브랜드 '한지마음'을 브랜드로써 '미소소프아트플랜'을 개설했다. 한지 조형작품 제작 작업과 한지를 이용한 좀처럼 작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감, 이미지, 텍스처의 느낌을 콘텐츠화하여 한지의 느낌을 손쉽게 접하며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수공예 문화상품을 개발하며 전통문화 리뉴얼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김윤상기자



완주문화재단이 '2019 문화이모작 사업'을 9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이모작 '문화징검다리'

완주문화재단, 지역문화역량 강화 나서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박성일이)이 '2019 문화이모작 사업'을 9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이모작'은 문화매개 인력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사업 발굴 및 지역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완주를 중심으로 44명

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10개 그룹으로 나뉘어 공동교육 및 개별 멘토링을 통해 마을문화 확산의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 21일(토)에는 봉동 둔산리에 활동하고 있는 '재밌는 말짓'(황미선, 김인숙)팀은 아이들의 시선으로 마을 지원담색을 통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우리 동네 부뚜막' 게임을 제작하여 지역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고산·봉동지역 청년들로 구성된 '우물쭈

물'(정다희, 박지수, 김지영, 조아라) 팀에서는 '청년프리(free)택시' 프로젝트로 청년들에게 택시라는 매개로 인터뷰를 진행하며 삶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한편 지역교류를 위해 함께 진행하는 익산, 금산, 순창에서도 심리치료, 지역홍보영상제작, 소나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실습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향후 교육생들은 멘토링과 현장실습 과정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각종 국가사업 및 완주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공지영, 검찰 비판... "민주주의 살고자했던 국민들 가슴 짓밟혀"

소설가 공지영이 조국 법무부 장관 직책을 입수 수색한 검찰을 거듭 비판했다. 공 작가는 23일 밤 페이스북에 "오늘 입수 수색과 짜편면에 상처받은 건, 그와 그의 가족뿐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살고자했던 수많은 국민들 가슴이 짓밟힌 거다"라고 썼다.

또다른 글에서는 "조국사태가 막 시작했을 때 집으로 책 한권이 배달 되었다. 그의 새 책이었다. 좀 놀랐다. 흥미였던 거다. 트윗에서 국아 국아 부르며 친했던 동기동창인 그러서 뭐라도 말을 할 줄 알았다. 그의 요청으로 동양대에 강연도 갔었다. 참 먼 시골학교였다.

오늘 그의 기사를 보았다. 사람들이 뭐라하는데 속으로 힐드를 치려다가 문득 생각했다. 개 지당 갈수도 있겠구나 돈하고 권력주면 마음대로 그를 보내는데 마음이 슬프다. 실은 고생도 많았던 사람, 좋은 머리로 아닌지 그렇게 오래 머물며 박사도 못됐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의 논리라는 것이 학자들은 잘 안쓰는 독설, 단정적 말투, 거만한 가르침, 우리가 그걸 똑 똑한 거라고 생각했음에도 모르겠다. 늘 겪는 흔한 슬픔 이렇게 우리 시대가 명멸한다"고 적었다.

전날 올린 글에서도 검찰을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리강령 위반으로 검찰 청원합시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 글을 링크하고 "공유하시고 널리주세요. 검찰 쿠테타를 막아야 합니다"라고 썼다. /뉴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